

한해가 저물어간다. 남조선 각계층에게 있어서 이 한해는 과연 어떤 해였는가. 그것은 환멸과 저주, 불행과 고통의 날과 달이었다. 다름 아닌 윤석열역도때문에.

우려의 봄에서 분노의 겨울까지

우려와 실망이 시작된 봄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지만 남조선 각계층의 마음마다에 울러났것은 지난 3월 《대통령》선거에서 0.7%의 차이로 권력을 차지하게 된 윤석열역도에 대한 우려뿐이었다. 《도리도리》으로 불리우며 몸건사도 못하는 정치생동이, 《1일1방언》의 주책머리없는 사고, 손바닥에 《왕》자나 써가지고 다니는 미신쟁이, 온갖 부정부패혐의자, 《복선제격》을 고아대는 호전광, 대결광... 풍연한 우려가 아니었다. 당선되기 바쁘게 청와대는 《불길》하다고 하면서 사무실을 옮긴다. 관저를 옮긴다 하며 미신에 미쳐들어가는가 하면 경제위기로 민생은

후회와 불안으로 숨막힌 여름

전례없는 《검찰공화국》이 생겨났다. 제 옆구리에 끼고있던 검찰출신심복들, 친인척들로 《끼리끼리인사》, 《동아리정부》를 만든 윤석열역도. 그것은 정치보복, 정치테러로 이어진 파쇼독재의 변형인 검찰독재의 출현이었다. 역도는 민주개혁세력은 물론 정치적적수인 야당들과 그 관계자들에게 대한 대대적인 탄압광풍을 일으키고 지어 자기가 몸을 담근 당의 대표까지 《이 새끼, 저 새끼》하고 몰아대면서 심복들을 내몰아 끝내내 내쫓았다. 또한 생존권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을 비롯한 각계층을 박해하고 탄압하였다.

절망과 울분으로 서리맺힌 가을

무릇 가을은 풍요롭다고 한다. 그러나 남조선의 가을은 절대다수 근로대중에겐 풍요가 아니라 빈손으로 한지에 나왔아야 하는 절망과 원성으로 가득한 가을이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중고》속에서 가정들의 채무액은 무려 1조 5 500억US\$로 대부분의 가정들이 빚더미에 깔려 질식될 처지에 놓였다. 이러한 속에 9월에 들이닥친 태풍으로 수많은 수재민이 생겨났다. 하지만 윤석열역도는 폭우로 대재난이 발생하였지만 집안에만 들어박혀있고 아래것들은 수해복구를 한담시고 폭우피해복구현장에 밀려가 사진이 잘 나오게 비가 더 왔으면 좋겠다는 망발을 쫓으며 허허다거리며 민심의 환멸을 자아냈다. 또한 막바지에서 해매이는

분노의 초불바다 펼쳐진 겨울

초불이 타오른다. 여기저기서 울러나오던 원성이 분노의 함성으로 메아리치고있다.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청소년 등 남조선 각계층이 분노의 초불을 들고 반윤석열투쟁에 떨쳐나섰다. 《이대로 살수 없다》, 《윤석열 퇴진하라!》, 《퇴진 안하면 탄핵한다》, 《〈한〉미동맹은 전쟁동맹이다》, 《친일매국노 윤석열》, 《퇴진이 평화다》.



《더이상 못참겠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대중적인 초불집회 전개, 청소년들까지 윤석열퇴진투쟁에 합세—

남조선사회를 인간생지옥, 민주와 인권의 불모지로 만든 윤석열역적패권에 대한 각계의 분노가 또다시 대중적인 반《정부》투쟁으로 폭발하고있다. 지난 19일 남조선의 《초불승리전환행동》을 비롯한 각계층 단체들이 서울에서 《김건희퇴진-윤석열퇴진 제15차 전국집중초불대행진》을 개최하였다. 이날 각계층 참가자들은 16시부터 서울시청 앞광장에서 《전국집중초불결의대회》, 《제2차 윤석열퇴진 중, 고등학교학생초불

집회》 등 사전집회들을 먼저 진행하여 분위기를 고조시키는데 이어 18시부터 기본집회에 들어갔다. 이번엔 《초불승리전환행동》은 인터넷에 《윤석열퇴진요구 100만명서명운동》에 참가할것을 요구하는 글들을 올렸는가 하면 현장에 가실친박들을 전개하고 주민들에게 LED초불, 가면, 손구호 등을 나누어주면서 각계층의 초불투쟁열기를 고조시킴으로써 25만여명이 초불투쟁에 참가하였다고 한다.

참겠다》고 웨치며 투쟁기세를 올렸다.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된 초불투쟁에서 집회참가자들은 구호합창, 노래공연, 《윤석열퇴진》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결성제안 등으로 윤석열역적패당을 반대배격하는 투쟁에 적극 밀쳐나실 의지를 표현한데 이어 2016년 박근혜탄핵초불투쟁때처럼 《대통령실》을 에워싸는 대규모행진을 진행하는것으로 《김건희퇴진-윤석열퇴진 제15차 전국집중초불대행진》을

열마진 남조선의 윤석열역도가 출근길기자회견이라는것을 갑자기 중단해치워 여론의 비난을 또다시 받고있다. 언젠는 《국민과 소통》하는 새 《정부》의 탈라진 모습을 보여준다며 출근길에 기자들앞에 서서 낮간지러운 소리를 많이 하던 역도가 자기를 위해 만든 출근길기자회견을 왜 없애지쳤는가 하는것이다. 한마디로 혹을 때려다가 혹을 더 붙이는 자리가 되어서 췌던것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역도가 취입하자마자 출근길에 기자들앞에 나서는 낮간지러운 풍경을 펼쳐놓은 목적은 자기가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들의 목소리로 들으면서 정치를 하는 《대통령》이라는 뱀새를 퍼워 민심을 사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하였는가. 역도는 자기의 인기를 올리기 위해 각계층의 목소리를 들겠다고 하였지만 민심에 역행하는것만 골라가며 하였다. 경제는 날로 더욱 망가지고 백성은 살기 힘들다고 매일 아우성을 치고있지만 역도는 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삶을 보듬어줄 대신 제벌만 살찌우는 정치를 하고 살려달라 요구하는 노동자들을 경찰을 내몰아 탄압하는 데만 몰두하고있다. 절대다수 사람들이 《공정과 상식》이 있는 사회를 바라는데 역도는 집권해서 제 처가권과 측근들만 감싸주고 내세우는 《끼리끼리정부》, 《동아리정부》를 만들고 저들과 생각이 다른 세력은 다 정치보복과 탄압의 파격으로 삼았다. 민심은 평화와 안정을 바라지만 역도는 미국은 물론 심나라속속들라도 손잡고 전쟁대결책동에 광분함으로써 정세를 전쟁정경으로 몰아갔다. 이러한 반인민적, 반민족적행위로 하여 남조선은 파국의 진멸속으로 더 깊숙이 빠져들고 《윤석열퇴진!》의 함성이 남조선강산을 진감하고있다. 결국 역도가 자기를 분철하려고 고안해낸 출근길기자회견이라는것이 속에 없는 한갓 기만적인 연극이라는것이 날날이 드러

타오르라 분노의 초불이여

유현의

초불이 타오르다 분노가 타번진다
《국민이 죽어간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어둠을 사르며 암흑을 태우며
초불의 바다우에 터져오르는
격노의 외성 고요를 깨뜨린다
참을수 없는 중오가 커든것이다
더는 짓밟혀 살수 없는 몸부림이
용서할수 없는 죄악에 지른 불이다
막막한 앞날을 두고 가슴태우고 태우다
끝내는 이대로 못살아 추켜든 불이다
한밤중 쓸어드는 흙탕물에
살려달라 애라게 태를 치던 세 모녀
모지라져 피가 나던 그들의 손이
수십만의 손들에 쥐여준 초불
부정과 부패로 찢든 더러운 악정하에
그대로 살겠느냐 정의가 지켜준 초불
생활고에 허덕이는 인생
호소와 절규로는 결코 바꿀수 없다
분노한 아버지들이 틀어잡은 초불

매일같이 전쟁의 화약배를 풍기는 땅에
자식들의 죽음을 원치 않는다
피발선 어머니들이 그려진 초불
보라 한명한명의 손들을
역도의 감언리설에 속은것이 너무 분해
가슴을 아파게 두드러진 손들이다
자식을 잃고 일자리를 잃고
불행과 고통의 눈굽을 찍던 손들이다
더이상 이렇게 살수는 없어
더이상 참고만 있을수 없어
분노와 증오의 불을 켜든 사람들
아니, 심장에 불을 달고
저주로운 세상에 불을 지른 사람들이여
꺼지지 않으리라 서슬찬 증오의 불길
끄지 못하리라 초불의 저 바다
역도가 비참한 종말을 고향 때까지
오, 고통과 불행으로 숨막히는 어둠
불길로 태우려 노도치는 초불의 바다
민중의 뭉친 힘 세상을 바꾼다



후을 때려다가 후을 붙인 광역웅

오히려 그 출근길기자회견을 통해 정치적미숙아로서의 역도의 추악한 본색이 더욱 드러나고 하여 여론의 조소와 야유, 지탄의 대상으로 되게 되었다. 역도가 얼마나 체신머리없는 정치적이둔아, 해지러운 소리를 많이 하던 역도가 자기를 위해 만든 출근길기자회견을 왜 없애지쳤는가 하는것이다. 한마디로 혹을 때려다가 혹을 더 붙이는 자리가 되어서 췌던것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역도가 취입하자마자 출근길에 기자들앞에 나서는 낮간지러운 풍경을 펼쳐놓은 목적은 자기가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들의 목소리로 들으면서 정치를 하는 《대통령》이라는 뱀새를 퍼워 민심을 사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하였는가. 역도는 자기의 인기를 올리기 위해 각계층의 목소리를 들겠다고 하였지만 민심에 역행하는것만 골라가며 하였다. 경제는 날로 더욱 망가지고 백성은 살기 힘들다고 매일 아우성을 치고있지만 역도는 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삶을 보듬어줄 대신 제벌만 살찌우는 정치를 하고 살려달라 요구하는 노동자들을 경찰을 내몰아 탄압하는 데만 몰두하고있다. 절대다수 사람들이 《공정과 상식》이 있는 사회를 바라는데 역도는 집권해서 제 처가권과 측근들만 감싸주고 내세우는 《끼리끼리정부》, 《동아리정부》를 만들고 저들과 생각이 다른 세력은 다 정치보복과 탄압의 파격으로 삼았다. 민심은 평화와 안정을 바라지만 역도는 미국은 물론 심나라속속들라도 손잡고 전쟁대결책동에 광분함으로써 정세를 전쟁정경으로 몰아갔다. 이러한 반인민적, 반민족적행위로 하여 남조선은 파국의 진멸속으로 더 깊숙이 빠져들고 《윤석열퇴진!》의 함성이 남조선강산을 진감하고있다. 결국 역도가 자기를 분철하려고 고안해낸 출근길기자회견이라는것이 속에 없는 한갓 기만적인 연극이라는것이 날날이 드러